

✦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축복' 전통과 하나님의 사정(1)

'장자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을 옮기게 된 하나님의 사정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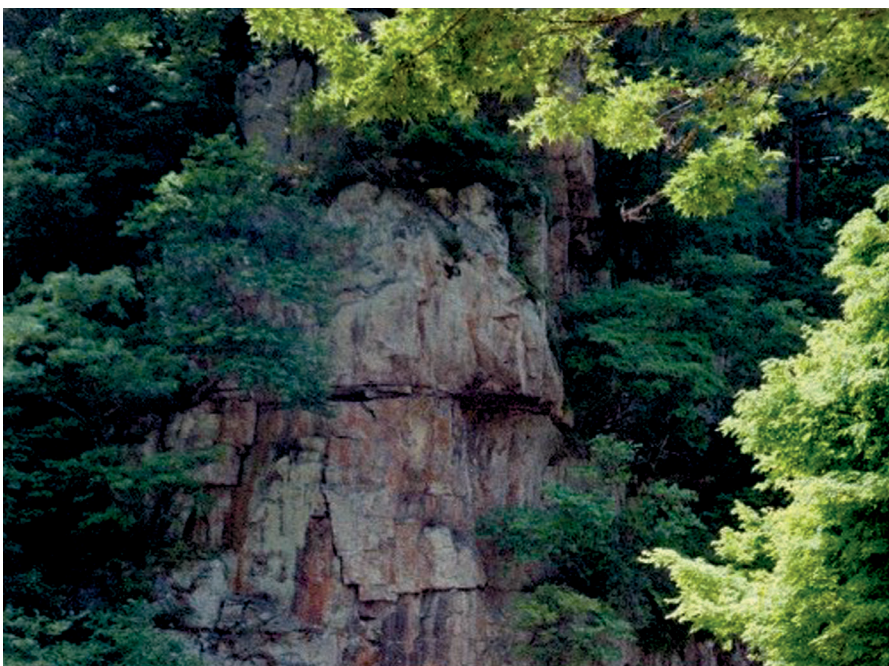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가 확실함을 증거하는 성경 내용이 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 41:4)"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0,11)"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를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인가를 기술했던 예언서라는 측면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왔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에서 장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배출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귀를 속이는 기만전술을 구사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여야만 알 수 있다. 또한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 놓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풀 수 없다. "성경을 역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3:16)" 그렇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풀 수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쁨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요일2:27)" 기쁨부음을 받은 구세주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정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내용이 나온다(하나님의 선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지라"
(아브람은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열국(列國)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은 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되었다. 아브람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다. 편집자 주)

우리 인간들도 특정한 자신의 편으



로 만들 경우 그렇게 하는 이유나 목적이 당연히 있다. 하물며 하나님에 있어서라? 하나님이 어떤 사정이 있기에 갑자기 아브람의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한 구절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풀 수 있다.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인 '삼위일체'라는 슬어에 담긴 '삼위'에 대한 구성요소를 알아야 한다. 삼위일체라고 하면 당연히 다음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동일 시간에 동일 공간에 함께

존재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에덴동산'이다. 성경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 아담, 해와 세 분만 존재하였다. 그런데 성경을 주경으로 들고 있는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데 그 옛날 로마시절 "니케아공의회"에서 정의되었다고 한다. 신(하나님)의 특성을 사람이 감히 정의한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삼위일체'가 확실함을 증거하는 성경 내용이 있다(아래 참조).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사41:4)" "나의 전에 지으심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

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43:10,11)"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계21:6)"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전15:45)"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구세주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며 위의 인용된 성경 구절에서 밝히는 '나중에 있을 자', '오메가' 역시 동일 존재에 대한 다른 이름임을 말할 것도 없다.

장자 축복의 숨겨진 뜻

그런데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태초와 나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첫 사람과 마지막 아담'에서와 같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 그 단서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구성요소인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城)인 에덴동산이 붕괴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징인 삼위일체라는 구조가 깨어진 것이다. 이러하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城)인 에덴동산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졌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걸 이루고자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으로 타락한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의 독(毒)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장자 축

복'이라는 요식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을 옮겼던 것이니 그러함을 의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아래 참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마22:32)"
이것으로 히브리(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축복'의 행위에 담긴 의의를 알게 되었다.
장자 축복' 행위가 설명된 성경내용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창12:1~3: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됨//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21:12: 최초 장자 축복//이삭) 분처 소생인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창27:28,29: 두번째 장자 축복//야곱)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즉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음회에 계속) 정충천 사

